



동아시아 수출 경쟁력 분석

- 한국 vs. 중국, 일본, 대만 -

SUMMARY

동아시아 주요국 수출경쟁력	한국	중국	일본	대만
	—	↑↑	↓	↑↑
주요 품목별 수출경쟁력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전기기기	↑↑	↓	↑↑
	반도체	↑↑	↓	↑
	기계	↑↑	↓	↑↑
	자동차	↓	↑↑	↓

↑↑: 수출액 증가율 또는 수출점유율 증가폭 1위, ↑: 수출액 증가율 및 수출점유율 증가폭 2위, ↓: 수출액 증가율 및 수출점유율 감소 시, —: ↑↓ 해당 없음

한국 경제 시사점 중국·대만과의 수출 경쟁 심화되는 상황이므로 이들을 뛰어넘는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반도체는 비교 대상국 모두 경쟁 심화 → 국가 단위 산업 지원책 마련 절실

분석 배경

❖ 주력 수출 품목이 유사한 동아시아 4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수출 경쟁력 분석
 → 한국 수출의 현주소 점검 및 과제 발굴 목적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액 상위 5개 중 3개가 동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수출액 상위 5대 품목('21년 기준)

■ 동아시아 주요국의 상위 5대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이 동일하여 경쟁 치열

	한국	중국	일본	대만
1	전기기기	전기기기	기계	전기기기
2	기계	기계	자동차	기계
3	자동차	가구	전기기기	플라스틱
4	플라스틱	플라스틱	정밀기기	정밀기기
5	석유	자동차	철강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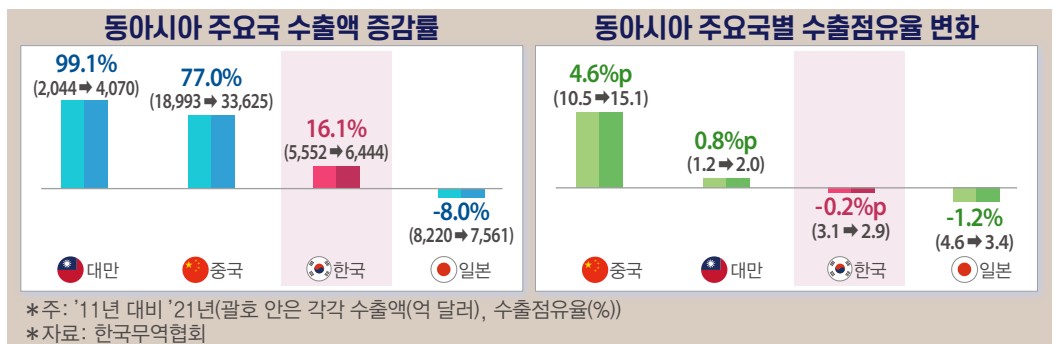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HS코드 2단위 기준)

대만·중국 수출 크게 증가... 한국은 소폭 증가

수출경쟁력 종합 분석

최근 10년('11년 → '21년) 주요 수출지표 변화

■ 수출 증감률, 대만(99.1%), 중국(77.0%), 한국(16.1%), 일본(△8.0%) 순
 * 대만은 '11.1~'21.11월 대비 '21.1~'21.11월 수출액 증감률 기준
 ■ 세계 수출점유율, 중국(4.6%p), 대만(0.8%p)은 증가... 한국(△0.2%p), 일본(△1.2%p)은 감소
 * '21년 수출점유율은 '21.1~'21.11월 기준



주요 경쟁품목별 현황

❖ 한국 수출액 상위 3개 품목의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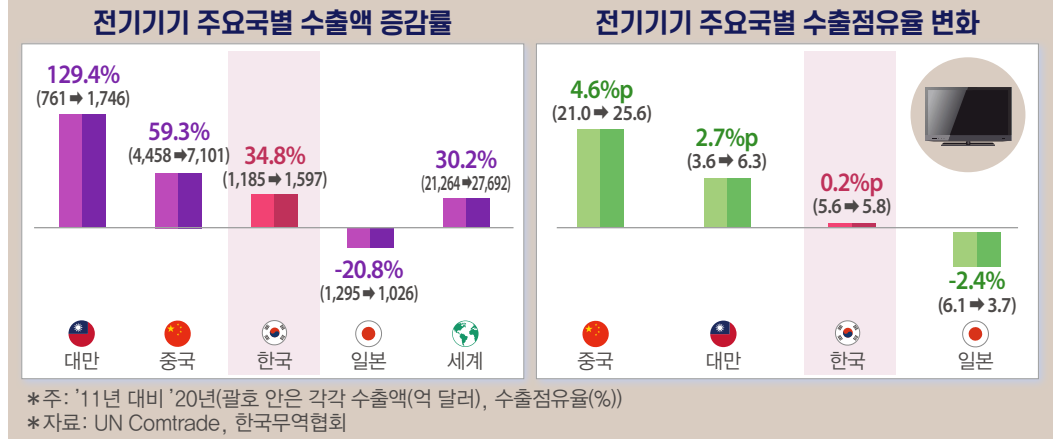
* 국가별·품목별 수출액 및 점유율 데이터 확보 가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 사용('20년)

대만·중국,
전기기기 수출경쟁력
크게 향상
한국은 소폭 향상

1 전기기기 한국, 중국과의 수출점유율 격차 늘고 대만에는 추월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기준(HS 코드: 85)

- '20년 수출증감률(%,'11년 비): 대만(129.4), 중국(59.3), 한국(34.8), 일본(△20.8)
- '20년 수출점유율 변화(%p,'11년 비): 중국(4.6), 대만(2.7), 한국(0.2), 일본(△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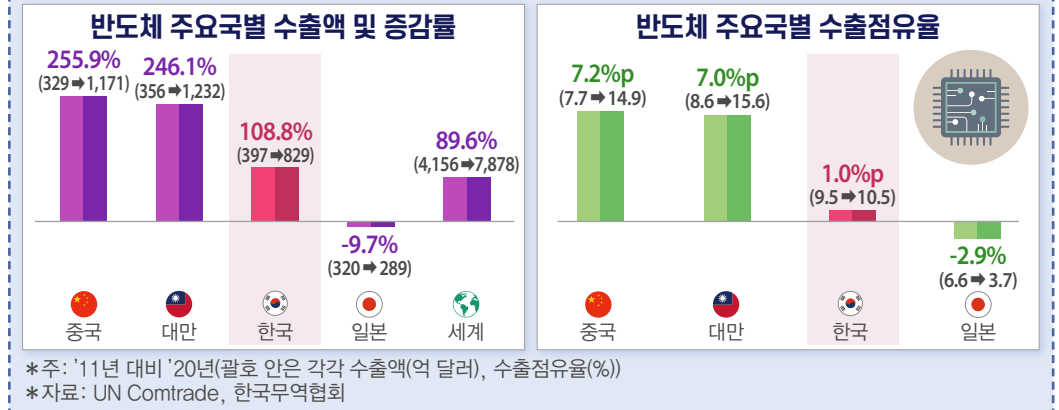


대만·중국,
반도체 수출경쟁력
크게 향상
한국은 비교적
소폭 증가

❖ 반도체: 한국, 중국·대만 수출증가율의 절반 이하... 대만에 점유율 역전 허용

* 반도체는 전기기기 하위 품목이나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전체 수출의 17.0%) 고려, 별도 분석
* 전자집적회로 기준(HS 코드: 8542)

- '20년 수출증감률(%,'11년 비): 중국(255.9), 대만(246.1), 한국(108.8), 일본(△9.7)
- '20년 수출점유율 변화(%p,'11년 비): 중국(7.2), 대만(7.0), 한국(1.0), 일본(△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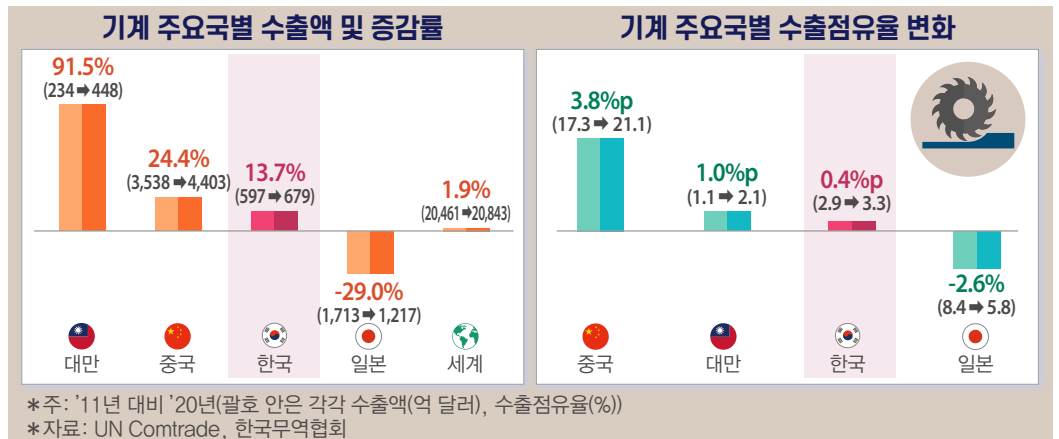


대만·중국,
기계 수출경쟁력
크게 향상
한국은 소폭 향상

2 기계 한국 수출점유율 소폭 늘 때, 중국·대만은 크게 증가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기준(HS 코드: 84)

- '20년 수출증감률(%,'11년 비): 대만(91.5), 중국(24.4), 한국(13.7), 일본(△29.0)
- '20년 수출점유율 변화(%p,'11년 비): 중국(3.8), 대만(1.0%), 한국(0.4), 일본(△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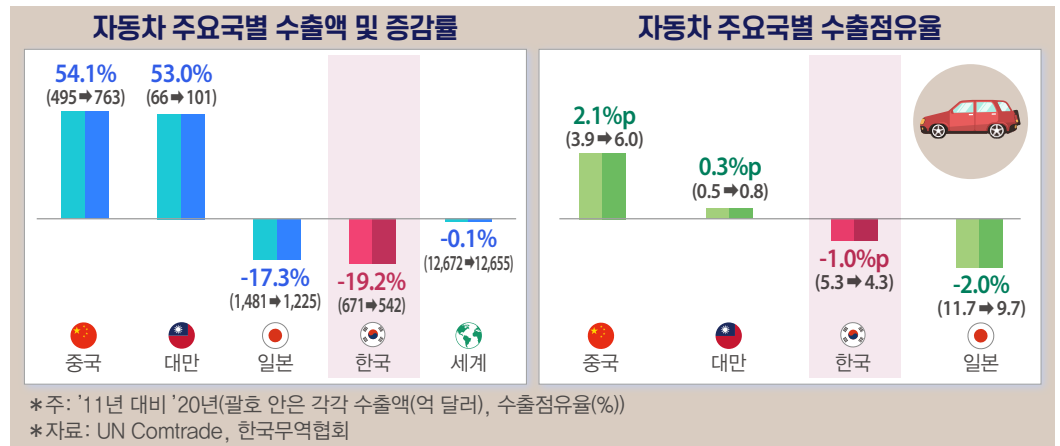


대만·중국,
자동차 수출경쟁력
크게 향상
한국·일본은 악화

3 자동차 한국 수출액·수출점유율 동반 감소, 중국·대만은 증가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기준(HS 코드: 87)

- '20년 수출증감률(%,'11년 比): 중국(54.1), 대만(53.0), 일본(△17.3), 한국(△19.2)
- '20년 수출점유율 변화%p,'11년 比): 중국(2.1), 대만(0.3), 한국(△1.0), 일본(△2.0)



한국 경제 시사점

- ① 대만, 중국이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
- ② 반도체는 동아시아 주요국 모두 경쟁 심화

- 동아시아 경쟁국 중 대만과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 대만, 중국을 능가하는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새로운 분야 개척 필요
- 반도체의 경우, 동아시아 경쟁국 모두와의 경쟁 심화되고 있으므로, 전폭적 지원 절실
* 중국은 15년 이상 반도체 영위 기업 중 고도 기술 적용 기업에 5년 법인세 면제 + 5년 세율 인하
* 대만은 TSMC의 본사가 위치한 신주과학공단 입주 기업에 5~9년간 법인세 면제
* 한국은 국가전략기술 R&D 투자세액공제 30%~40% 적용에 불과(대·중견기업 기준)

수출경합도지수(ESI)

비교 대상 국가들의 수출품목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지수로, 지수 값이 증가하면 해당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한 것으로 간주

- 전기기기**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경합도는 상승(7.4), 중국(△10.5)·일본(△6.5)은 하락
- 기계** 한국과 대만과의 수출경합도 상승(1.6), 중국(△0.4)·일본(△2.2) 하락
- 자동차**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 상승(7.4), 일본(△0.8)·대만(△10.2) 하락
- 반도체** 한국과 중국(3.7), 일본(2.4), 대만(15.1) 모두 수출경합도 상승

	한-중			한-일			한-대만		
	2011	2021	변화	2011	2021	변화	2011	2021	변화
전기기기	63.5	53.0	△10.5	63.5	57.0	△6.5	73.9	81.3	7.4
기계	49.5	49.1	△0.4	65.6	63.4	△2.2	54.3	55.9	1.6
자동차	46.6	54.0	7.4	91.1	90.3	△0.8	46.6	36.4	△10.2
반도체	81.7	85.4	3.7	58.3	60.7	2.4	17.3	32.4	15.1

*주: 대만의 경우 '21.1~11월 기준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쟁점과 체크포인트

-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주요 수출경쟁국 중 중국과 대만의 경쟁력 향상이 뚜렷한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경쟁력 악화 경향
- ✓ 한국과 중국·대만의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 내용문의: 이재수 팀장(02-3771-0495), 강현민 연구원(0423) khm@fki.or.kr



글로벌 싱크뱅크 FOCUS



IMF

Three Policy Priorities for a Robust Recovery

강력한 경제회복을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

Kristalina Georgieva
2022. 2. 16.



<https://blogs.imf.org/2022/02/16/three-policy-priorities-for-a-robust-recovery/>

SUMMARY

올해 세계경제 회복이 계속될 전망이나 오미크론 변종과 지속되는 공급망 교란으로 성장률은 다소 하락

*IMF, 2022년 세계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4.9% → 4.4%)

강력한 경제회복을 위한 3대 우선정책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악영향 대비

- ❖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생산 손실은 2024년까지 13조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 변이가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하나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진단-백신접종-치료'의 프로세스가 필수 → 코로나19 종식이 경제 문제 해결의 열쇠

2. 국가별 상황에 맞춘 통화 정책 마련

- ❖ **영국, 미국** 높은 인플레이션과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신속한 통화 긴축 필요
- ❖ **유로존** 인플레이션의 주 원인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므로, 비교적 여유로운 통화 긴축 가능
- ❖ **개도국**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가능성에 대비

3. '지속가능 재정'으로 전환

- ❖ '20년 한 해 동안 글로벌 부채 226조 달러로 증가, 전 세계적인 재정정책 정상화 필요
 - ❖ 부채 관리 여력이 부족한 개도국을 위해 G20 부채처리 공동 프레임워크* 활성화 도모
- *G20 부채처리 공통 프레임워크: 빈국 대상으로 채무변제 일시 동결, 채무 구조조정 등 지원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What to watch in climate change policy in 2022

2022년 기후변화정책 무엇을 주목해야 하나

Economic Intelligence Unit
2022. 2. 10.

SUMMARY

올해 COP27(11월, 이집트)에서 국가별감축목표(NDC)가 상향되지는 않을 전망

1. 각국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나 감축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기존 목표에 집중

- ❖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각국의 1순위 정치이슈로 부상 → 각국 정부는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정책 목표치 달성에 집중 전망

2. 녹색금융 및 기술발전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리드할 전망

- ❖ '21년 4,520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이 발행('20년 대비 50% 증가)되었으며, 탄소포집 및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 증대
- ❖ 유럽의 그린워싱* 감시 강화, 녹색산업 분류체계(Green Taxonomy) 도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친환경 투자가 위축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성장을 이끌 것
- * 그린워싱: 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의미
- * 녹색산업 분류체계: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녹색산업을 선정하여 재정지원 및 투자 집중

3. 자연재해 위험과 불확실성 증가

- ❖ 기후변화의 결과로 자연재해의 규모와 예측 불가능성 증가
 - * 기상 이변 및 자연재해 빈도 증가 → 예측 못한 기상 이변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 증가
- ❖ 개도국들은 친환경에너지 전환 보조금보다 '자연재해 시 피해 회복' 지원금 증액을 요구하나, 선진국들은 이에 호응하지 않아, COP27의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전망



<https://www.eiu.com/n/what-to-watch-in-climate-change-policy-in-2022/>